



발언도 연구도 현재진행형인 '젊은 학자'의 정치 일기

지명관 한림과학원 일본학연구소 소장은 내년에 만 80세가 된다. 그에게 80세라는 나이는 특별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책을 내년에 펴낼 예정이기 때문. 80세 생일에 맞춰 '나의 정치일기'라고 그날 그날의 한국 정치현실에 대해 느낀 단상을 단편식으로 쓴 글들을 묶을 생각이다.

정치인도 실명으로 언급하고 그때 그때의 생각을 여과 없이 썼지만 책으로 묶을 때 교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잘못 본 것도 있고, 그대로 맞아떨어진 상황도 있지만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느꼈나 하는 것과 그날의 역사를 가감없이 남기려고 수식어도 되도록 자제했다. 현재 2백자 원고지 용지로 1,700장 정도 쓴 상태.

"내년 10월 팔십 생일에 맞춰 책을 내느냐, 생일을 보내고 작업에 들어가느냐 고민중이에요.(웃음) 민주화운동을 하던 중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도 추가로 넣을 생각이요, 해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했나도 새로 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회고록을 쓰라고 하는데 회고록은 자기 칭찬 아니에요? 그건 차마 못 쓰겠고, 또 고백록은 내가 고백할 가치나 쓸 용기도 없어서 망설여지죠. 그래서 회고록이나 고백록 아닌 지금까지 써 온 글을 묶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유신정권을 등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면서 군사정부를 비판했던 지명관 소장은 1972년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사상계>에서 근무했다. 주간직을 맡은 것이 1964년 8월이었고 1966년 무렵까지 일을 했다. <사상계> 시절을 회상하면 장준하 선생과 사무실에서 함께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들이 떠오른다.

"중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이

저녁만 되면 모여서 토론을 했죠. 일종의 지식인 살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국을 논했기 때문에 한 일회담 반대할 때 지식인들을 묶어서 서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상계>를 중심으로 일종의 지식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다고 봐야죠. 또 당시 교양을 취할 수 있었던 잡지는 <사상계>가 유일했다고 봐야죠. 거의 모든 지식인이 <사상계>를 통해서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문이 있다지만 신문은 성격이 다르니까 글을 쓴다면 <사상계>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동인문학상을 주는 날인데 상금이 없어서 그가 근무했던 학교에 가서 빌려다가 준 적도 있다. 장준하 선생은 사적인 건 배제하고 구국차원에서 잡지를 했기 때문에 일체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제가 선생에게 조금 타협합니다. 그리고 <사상계>를 살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와나미처럼 됩시다. 이 잡지가 살아남아 다음 세대에게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장 선생이 내가 장사꾼인지 야냐고 하시더군요. 타협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셨죠."

<사상계> 주간을 맡기 전 덕성여고 교장으로 근무했던 그가 반체제적, 정치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된 데에는 1960년의 4·19가 큰 작용을 했다. 학생들을 막는 입장인 교육자라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었고 5·16 이후부터 정치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계속된 싸움으로 마음의 고갈 상태를 느껴 1972년 유신정권을 등지고 일본행을 선택한다.

"애초 계획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근대화과정에서 어떻게 살았나 비교하면서 공부하겠다는 것이었고, 우리나라 지성사라고 할까 그걸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크리스천이라 기독교 관계 사람을 많이 아는데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면 저의 활동경력으로 미루어봐 체포당할 테니 돌아가지 마라, 한국에선 민주화운동이 지하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며 만류하더군요.”

지인들의 도움으로 1974년 5월부터 도쿄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생활비는 세계교회연합회에서 대주었다. “도쿄여대에서 처음엔 철학하고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있게 되니까 새로운 학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를 보호해 주고자 한국학이라는 연구 코스를 만든 거죠. 그 이후 1987년경부터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한국사를 가르쳤어요. 역사적 사건을 한·일 양국과 연관지어 설명하다 보니 자연스레 한·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연구가 종교철학에서 역사로 기울어졌습니다.”

양국의 역사를 공부하며 그는 일본역사가 자국을 정치적으로 무조건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제는 아시아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써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역사기록도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국수주의의 잔재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양식 있는 일본인들과 연대를 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 탓에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법정 투쟁을 할 때 그는 법정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법정에서 서서 그가 “한국에서 청·일전쟁 이후에 일어난 반일 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발언하자 일본 문부성 관리가 반론을 하려고 했다. 그때 그는 재판장이 그런 반론은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일본정부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러 나간 자리였지만 일본의 양심이 살아 있다는 걸 느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 한·일 간 연대의 가능성, 새로운 아시아를 위해 양식을 갖고 손잡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1994년 4월이었다. 밖에서 20년간 군사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 감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항상 낙관적이었다.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믿은 때문이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동안 고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집을 못 찾을 정도였으니까요. 전 우리 국민이 가진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정부에 불만을 갖는 것도 국민들의 잣대에 맞지 않으니까 불만인 거죠. 정치적으로 고도한 국민이라고 봐야죠. 도의적인 잣대가, 물론 개개인이 다 도의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권을 본다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시각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대단히 윤리적입니다.”

귀국한 그에게 한림대에서 일본학연구소를 만든다며 소장직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그는 일주일 간 답변을 주지 못했다. 고국에서 다시 공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데다 무명으로 돌아가서 못다 한 공부를 지속하고, 가능하다면 책도 써보고 싶다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이 20년을 일본에 있게 한 것은 자신을 이렇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신앙적인 해석을 내리고 수락했다. 그 이후 그는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등으로 나이가 무색할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일본학연구소 소장직도 현재 5만 권 정도 구비되어 있는 책을 10만 권 정도까지 늘려놓은 다음 물러나 앞서 말한 책 작업을 하며 조용한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 자신의 의지보다 지명관 소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결정권(?)이 실려 있다고 보아야 할 듯싶다. **한·일**